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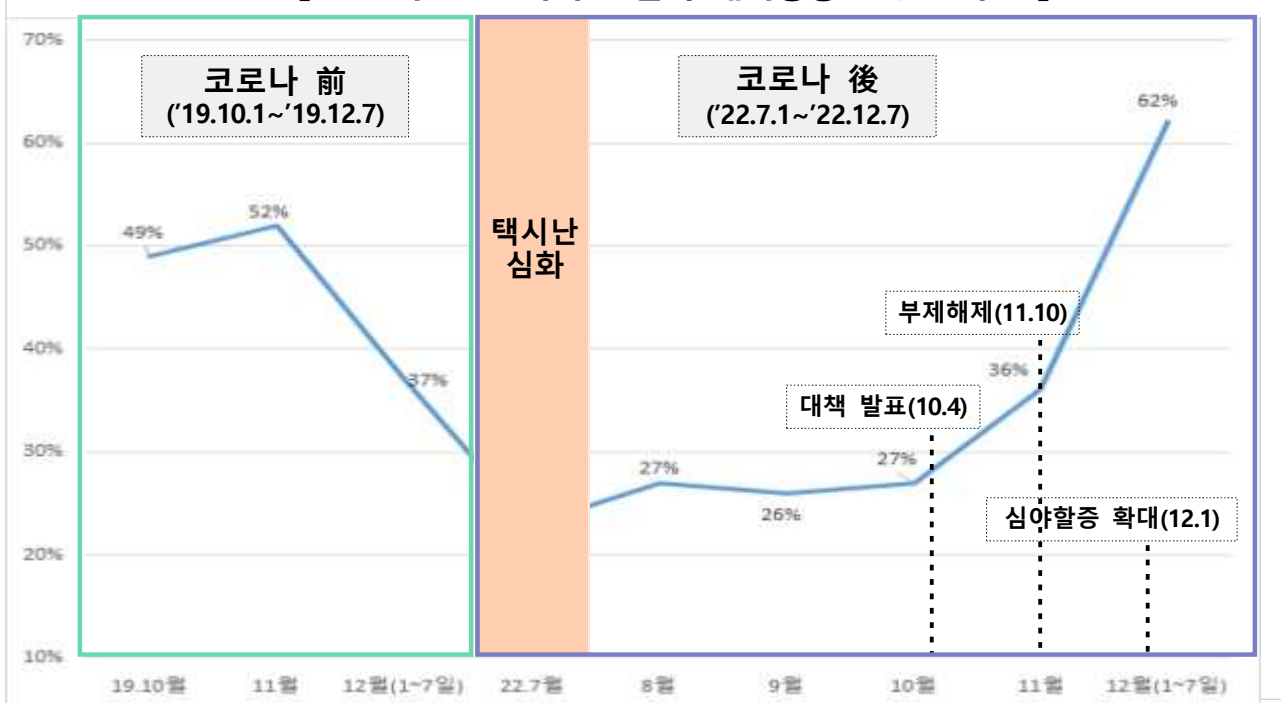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12. 8.(목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17) 팀 장 이경수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 사무관 성경림 (044-201-3813)
보도일시	2022년 12월 8일(목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심야 택시난 대책 정책효과 데이터 분석 (12월2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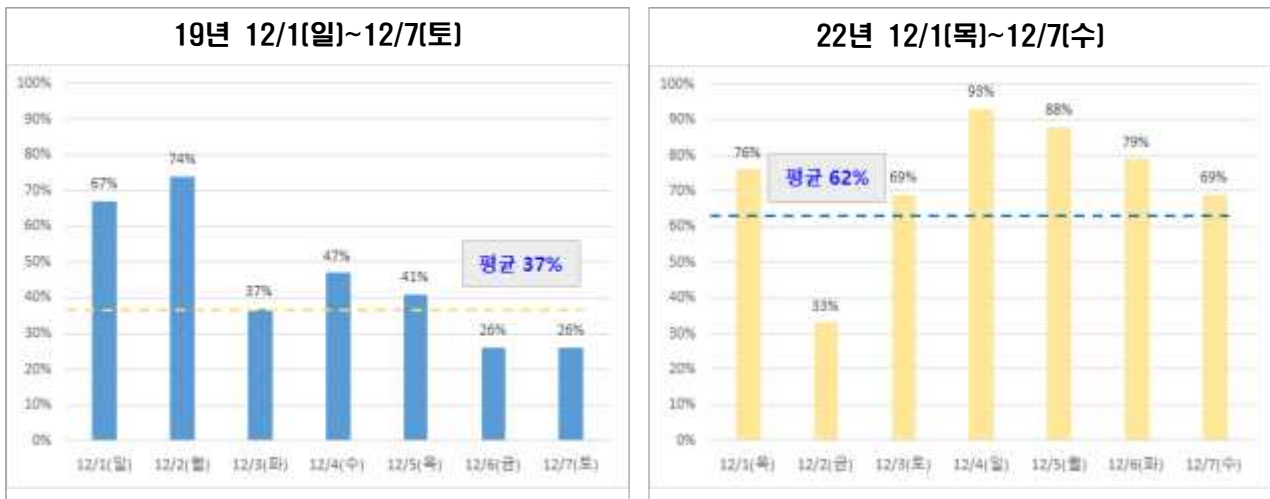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」에 따른 후속 조치로, 심야운행조 운영(10.26), 심야 탄력호출료(10.28~11.3), 서울시 택시 부제해제(11.10)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, 12월 2주 정책효과 데이터 (배차성공률 등)를 발표하였다.
- 서울지역 11월 심야시간(22시~03시) 배차성공률은 36%(월평균)로,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(11.24 우루과이전, 11.28 가나전)가 있었음에도 10월의 27%(월평균)보다 9%p 상승하였으며,
  -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심야시간(22시~03시) 평균 배차성공률은 62%로 11월(36%)보다 대폭 상승(+ 26%p)하는 추세이다.

【 코로나 前後 시기별 심야 배차성공률(서울) 비교 】 \* 출처 A社



- 서울지역 12월 배차성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현재까지 7일간('22.12.1~12.7) 평균 62%로서 코로나 이전 같은 기간('19.12.1~12.7) 배차성공률 37%를 상회하였으며,
- 택시난이 심한 토요일(12.3)에는 택시공급대수가 부제해제(11.10) 전주 대비 18.5%(18,104대<sup>11.5</sup> → 21,447대<sup>12.3</sup>, +3,343대) 증가하여, 배차성공률은 69%를 기록하였다.

【 19.12월, 22.12월 심야 배차성공률(일간, 서울) 비교 】 \* 출처: A社



\* (참고) 22년 12/2(금)은 월드컵 포르투갈전

- 운행건수를 살펴보면, 서울지역 차량 1대당 운행건수는 택시 부제해제(11.10) 이후 심야시간(22시~03시) 8.0건<sup>11.1~11.9</sup>에서 10.5건<sup>11.10~12.4</sup>으로 31.3%(2.5건) 증가하여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빈도가 높아져, 택시의 심야 가동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택시 부제해제로 택시 공급 유연성이 확보되었고, 이후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과 서울시 심야 할증 확대로 택시 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이 높아지며 공급 개선 등 심야 택시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”면서,
- “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